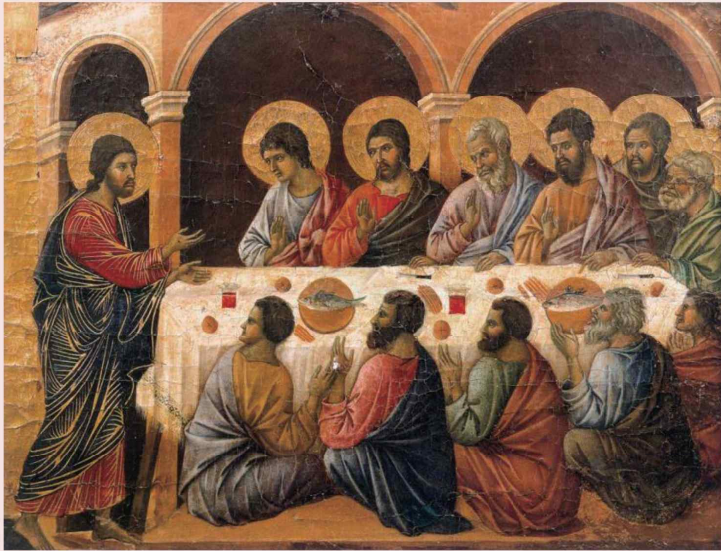


# 부활 제3주일(4월 14일)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루카 24,35-48)



### 식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열한 명의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셨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하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데 화가는 식탁에 구운 생선만 올려놓지 않고, 보리빵 다섯 개와 포도주 두 잔도 함께 올려놓아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인 빵의 기적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성체성사를 떠올리게 했다.

그림 두초 | 1308-11년, 나무판에 템페라, 39.5x51.5cm, 시에나 대성당 미술관. 이탈리아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평화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루카 24,38)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루카 24,45)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답을 달라고, 보채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수차례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확신했던 분이 나타나 말을 걸어왔으니 놀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지는커녕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상처를 보여 주시며 음식까지 먹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설명보다 더 힘 있게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에게서 이 사랑을 먼저 느꼈습니다. 애정을 확인받자 곧바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 셈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